

# 아이들을 그리면서

사이다마조선유치반 교원 김가야

《선생님, 이 마스크 어디서 났어요? 참 고와요!!》

어린이들의 소박한 질문에 그저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밖에 대답할수 없었던 나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사이다마현이 우리 유치반을 마스크배포대상에서 제외한 그날,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속에서도 어린이들은 변함없이 동무들과 즐겁게 마음껏 유치반 생활을 누리고있었으며 그 모습을 보는 나는 몇번이고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유치반에는 우리 동포들과 선량한 일본시민들이 격려편지, 마스크를 비롯한 따뜻한 마음들을 매일처럼 보내주고있다.

온 세계가 신형코로나비루스때문에 비정상적인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주는 이러한 고마운 마음들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일본사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있으며 그 무거운 분위기는 우리의 나 어린 원아들에게도 가차없이 들썩워지고있다.

1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취해진 휴교조치때문에 아빠, 엄마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고계시며 어린이들이 어서 유치반에 가고싶다고 이야기하고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나는 우리 교원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있을가?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우리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즐겨지내게끔 뽀뽀카드, 뽕기뽕기, 단추채우기 연습놀이도구 등을 만들어 편지와 함께 선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도 우리 노래를 즐겨 부를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묶은 CD와 노래집을 만들어 보내기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아침체조를 하는 모습을 생발신하기 시작했으며 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적극 알려주어 집에서도 체조를 즐길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엄마들이 아이가 집에서도 열심히 체조를 하고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매일처럼 연습해보고있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그럴 때마다 하루빨리 어린이들과 유치반에서 함께 지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어린이들의 웃는 얼굴이 그리워지기만 한다.

어린이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마음속

으로부터 바라고있으며 그동안 가정에서 지내는 어린이, 아빠, 엄마들을 위해 우리가 더 할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를 계속 생각해볼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 더욱 매력있는 유치반을 꾸리기 위해 힘써나가자고 한다.

《사랑하자! 이어가자! 다같은! 마음으로!》